

등록번호	공교육강회 특위 - 3695	담당자	전문위원	수석 전문위원	부위원장	위원장	의장	결재
등록일자	2019. 12. 16.	황호동	박진숙	김사숙	김은나		이병근	
결재일자	2019. 12. 16.							재
공개구분	공 개	협조			사무처장	7.16.19 서명 회		

**제316회 정례회 중 충청남도 공교육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공교육활성화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현장방문 결과보고**



충청남도의회
(특별위원회)

제316회 정례회 중 충청남도 공교육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공교육활성화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현장방문 결과보고

◆ 충남관내 학교 중 교육과정 우수학교 벤치마킹

- 2015개정 교육과정 운영 우수사례 벤치마킹
-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학교 일선 현장 의견 수렴
- ⇒ 도의회 차원의 지원할 사항 점검을 통해 의정활동 반영

I, 현장방문 개요

- 기 간 : 2019. 11. 21(목) 10:00 ~ 16:40
- 방 문 지 : 2개교
 - 논산고등학교, 충남과학고등학교
- 주요내용 : 2015 개정교육과정 운영사례, 시설물 견학 등
- 참석자
 - 특위위원 : 7명 [한옥동 위원장, 김은나 부위원장, 김석곤, 김명숙, 김영수, 방한일, 조철기]
 - 의회직원 및 집행부 : 12명
- 주요일정



II, 현장방문 결과

① 논산고등학교

- 방문일시 : 2019. 11. 21(목) 11:30 ~ 13:00 (90분)
- 장 소 : 논산고등학교

○ 학교 현황

- 교직원 현황 : 45명(교장, 교감 등 교원 30명, 행정실직원 24명)
- 학생 현황 : 306명(1학년 92명, 2학년 99명, 3학년 115명)
- 학교교육 비전 : 창의·융합형 글로벌 미래 인재 육성

현황 정취

이용선 교장

자율형 공립고인 논산고는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학교 학생중심으로 자유롭게 편성하여 다양한 특강과 수준별 지도학습, 방과후 수업을 모두 학생 맞춤형으로 운영함

세상을 바꿀 빛나는 논고인이라는 인재상을 바탕으로 'T자형 자기주도학습'에 탁월한 학생들을 배출하고 있으며, 해마다 변화하는 대학입시를 빨빠르게 분석해 맞춤형 대입 전략을 구상하고 있음.

논산고에서 추구하는 'T자형 인재'는 횡적으로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많이 알면서 종적으로는 특정분야에서 전문성을 갖는 인재를 의미함.

지난해까지 교내 정보올림피아드, 수학체험 활동전, 글로벌 리더십 대회, 공감 100% 프레젠테이션 경진대회 등 무려 78개의 교내대회를 열어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오고 있음.

또한, 학술동아리, 예술체육동아리, 봉사동아리, 진로직업동아리 등 100여 개의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알파고 소프트웨어아카데미, CEMA공학아카데미, SCBD경제아카데미, 가온누리 인문아카데미, MSG 클럽아카데미 등 토요일 프로그램도 학생들의 지적호기심을 창의·융합의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 있음

이 같은 학교의 노력은 대학 입시의 주도권을 가진 수시 학생부중심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요소인 학교생활기록부를 탄탄하게 만들어 가고 있음

올해는 논산고가 지역고와 함께 미래로 스쿨을 운영하여 논산·계룡·부여·서천·금산 등 5개 시·군 학교 학생들이 공동으로 원하는 과목을 개설해 온라인으로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수강 프로그으로 언제 어디서든 학생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장점과 더불어 주입식 강의가 아닌 토론형 강의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는 점에서 우수한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됨

논산고는 기존의 수업형태를 과감하게 버리고 자율형공립고의 특성을 살려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방향을 정립하고, 심화하고, 확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고 있으며, 새롭고 혁신적인 참여형 교육은 전국 교육과정 100대 우수학교로 선정되는 영광으로 이어졌음

질의 · 답변

김은나 위원(교육위원회, 천안8)

1. 학생들의 선택과목을 선택시 한쪽으로 치우쳐 선택을 할 경우 어떻게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지?
2. 진로선택은 1학년에 결정되어 교과목등이 2학년부터 달라지게 되는데 학생들이 성숙이 덜된 어린 나이에 결정됨에 따라 학생들에 대한 진로진학 지도가 필요하며, 교원연수를 통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함
3. 학생들 수업자료 개발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용선 교장

1. 학교운영계획서 31쪽에 보시면 학교지정과목이 있고, 학교선택과목이 있음.

학교선택과목이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인데 예를 들어 탐구선택1을 보면 2학년 1학기시 7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데 모두 분산되어 선택할 경우 교원수급등에 문제가 생겨 부득이 학교에서 학생들이 특정과목에 치우치게 선택하게 끔지도 하고 있음.

2. 1학년 3월달 부터 진로탐구활동을 시작하고 2학년때 선택을 해봐서 자기 적성에 맞지 않을 경우 다시한번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으

며, 1학년 부장을 중심으로 같이 자기주도적 연구활동을 하고 있으며 연구구성과를 바탕으로 서로 협력하여 성장하고 있음.

3. 학생들의 수업자료 개발은 본교에 수석교사가 배치되어 업무를 전담하여 진두지휘하고 있으며, 학습공동체를 통하여 서로 협력하여 자료개발을 하고 있음.

조철기 위원(교육위원회, 아산3)

논산고에서 현안사업으로 고교학점제 기반조성을 위한 교과교실 확보를 제시하셨는데 고교학점제를 위한 교과교실확보는 논산만의 문제는 아닌 충남 관내 모든 고등학교의 문제임.

이와 더불어 교원수급도 항상 문제시 되고 있는데 충남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이은복 교육국장

교실확보와 교원수급문제는 예산과 교원정원의 해결에 한계로 쉽게 해결 할 수 없어 교육과정운영을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학교연합, 지역연합, 대학연계, 온라인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자 함

학생들의 교과선택권을 높이기 위해 학교에서 모든 교과개설을 하기 어려움으로 인근 학교끼리 연합하여 거점을 만들고 운영하는 방법이 있으며, 거점을 학교에서 운영하는 학교연합, 지역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지역연합 등의 방법으로 공간 및 교원수급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우리교육청에서 위에서 말한 4가지 유형으로 우선 운영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 겠음.

방한일 위원(농업경제환경위원회, 예산1)

논산고에서 창의·인성 교과 교육과정을 9개 과목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인생을 살아가며 가장 중요한 것이 인성인 것 같은데, 윤리과목이 없어 너무 아쉬움 충분히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이해는 가나 너무 아쉽다.

앞으로 제의견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다.

김명숙 위원(농업경제환경위원회, 청양)

1. 논산고에서 1학년 진로선택별 학술탐구를 위해 4개 대학 탐방활동을 한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학교에서 정해서 가는 것인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체험하는 것인지? 또한 대학을 가지 않을 학생들도 참여하는 것인지?
2.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기술가정과 교육과정으로 되어 있는데 가정의 형태는 가족 뿐만 아니라 비혼, 1인 가정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어떻게 교육하는지?

이용선 교장

1. 대학 탐구활동은 유수한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학교방문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학교에서 인근에 있는 대학측과 전공학과 별로 접촉하여 교수님들과 상담활동을 통해 전공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에서 말한 대로 대학방문은 대학을 결정하기 위한 활동이 아니라 진로직업체험을 위한 것으로 모든 학생들이 참여한다.
2. 교육과정은 건강한 가족 형성의 기반이 되는 사랑과 결혼에 대한 가치를 교육하고 있으며, 비혼자나 1인 가족이 죄책감을 가지고 사는 일이 없도록 윤리교육을 강화하겠다.

김석곤 위원(교육위원회, 금산 1)

1. 학생자율동아리를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운영방법은 어떠한지?
2. 학생자치회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지도교사의 역할은?
3. 학교연합교육과정 운영은 어떻게 하며 학교장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한 여러 학교학생들이 모이다 보니 수업을 방해하는 등의 학생은 없는지?

이용선 교장

1. 2학년 학생회장을 중심으로 새롭게 2학기에 임원을 선출하였고, 학생회 조직 뿐만아니라 자치동아리인 힐링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회공간 조성을 위하여 교실반칸을 별도로 조성하고 도교육청의 예산을 지원 받아 학생회실을 꾸미었음
또한, 학생안전부장이 학생회를 총괄지도하고 있으며, 학생회에서 도출된 안건결과에 대해서는 1달에 한번 교장과 대화의 시간을 통해 경청하고 필요한 물품은 지원하고 있음
2. 본교에 정규교육과정에서 운영하는 창체동아리 25개 이외에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자율동아리 25개가 있으며 매주 수요일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주제를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다만 각 동아리마다 지도교사가 있어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 조언을 하고 있음
3. 학교연합교육과정운영은 우리 논산고가 거점학교로 지정되어 있어 서남부권 6~7개교가 참여하고 있으며, 독일어, 심리학, 교육학, 간호기초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주 방과후 1회에 3시간씩 운영하고 있으며, 정규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생활기록부에 기록되고 있음.

교육과정운영은 초기단계라 정착단계로 가려면 조금 더 성숙되어야 할 것 같다. 중도포기자도 나오고 타락학생도 있고는 하나 학생참여율이 높아 만족하고 있다.

또한, 공동교육과정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학구열이 높아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그런 일은 없음

한옥동 위원장(교육위원회, 천안 5)

고교학점제로 가기 위해서는 학교문화가 바꾸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음
첫째, 창의적이고 탄력적인 학생운영이 필요한데 논산고에서는 잘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노력해주시기 바람

둘째, 교원수급이 문제인데 교원1인이 다과목을 지도하는 경우 발생될 수 있어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수석교사를 중심으로 교사학습공동체를 이용하여 심리학, 철학 등 비 전공교과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교사 스스로 가져야 함

셋째, 진로지도를 위한 페러다임을 바꾸어 학생들이 스스로 상상도하고 지적으로 높아져야 함

넷째, 학생생활문화가 바뀌어야 하는데, 동료교사들끼리 격려하는 문화, 학교와 학교간에 벽을 허무는 문화 등을 위해 학교와 교육청이 함께 고민해야 주시기 바람.

교육부에서 학생들간의 형평성 문제로 정시를 확대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만약 정시가 확대된다면 고교학점제가 정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용선 교장

우리학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학생들 성적이 중학교 입학성적 기준으로 20~60% 수준으로 만약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정시로 대입을 치룬다면 어려울것으로 보임.

현재 학생들이 약 90%이상이 수시로 대학을 진학하고 있어 정시로 제도가 바뀔 경우 난감할 수 밖에 없음

한옥동 위원장(교육위원회, 천안 5)

앞으로 입시제도가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어 학교에서는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람.

활동현황

[논산고등학교 방문]



- 일시: 2019. 11. 21.(목)
- 장소: 논산고
- 활동내용
논산고등학교
학교방문



- 일시: 2019. 11. 21.(목)
- 장소: 논산고
- 활동내용
논산고등학교
교육과정 청취



- 일시: 2019. 11. 21.(목)
- 장소: 논산고
- 활동내용
미래로스쿨(온라인
교육과정) 시연회

② 충남과학고등학교

○ 방문일시 : 2019. 11. 21(목) 14:20 ~ 16:00 (100분)

○ 장소 : 충남과학고등학교

○ 학교 현황

- 교직원 현황 : 55명(교장, 교감 등 교원 34명, 행정실직원 21명)
- 학생 현황 : 199명(1학년 77명, 2학년 72명, 3학년 50명)
- 학교교육 비전 : 미래와 소통하는 과학인재 육성

현황정취

김준태 교장

충남 유일의 과학특수목적고인 충남과학고는 수학·과학과 인문학의 융합, 협업과 국제경쟁력 강화 등 시대를 읽고 미래를 지향하는 교육이 있으며 특히, 과학자다운 과학자의 기반으로 다음의 여섯 가지 덕목을 강조하고, 이를 'Be the Scientist of Scientists! Be-Ssci 커리큘럼'으로 구현하고 있음
생각(Book)은 책읽기와 글쓰기를 강조하는 '생각하는 힘을 가진 과학자', 세계(English)은 세계적인 소통을 지향하는 '국제 경쟁력을 갖춘 과학자', 창의(Science)은 수학·과학·정보 분야에 '연구 역량을 가진 과학자', 자주(Self-management)는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관리 역량을 갖춘 과학자', 융합(Consilience)은 인문과 히스토리를 통찰하는 '융합 역량을 갖춘 과학자', 사랑(Interaction)은 관계와 협업을 중시하는 '더불어 살 줄 아는 과학자'
모든 교육활동이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진학'을 연계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학생들이 큰 공부(Big Study)를 하면서 학업 역량을 키우고 있음

충남과학고가 실천하는 과학기술 책임교육, 그리고 학생들이 체득하는 과학자다운 과학자로서의 자질을 위해 최선을 다해 교육하고 있음.

질의·답변

조철기(교육위원회, 아산3)

- 학교교육과정 운영계획서를 보면 운영계획서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서를 보면 학생들이 과학고에서 별도의 사교육을 받지 않고 학교 공부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불과 37%밖에 되지 않고 있음
-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는 어떻게 반영되는지?

김준태 교장

- 학교학교 아이들이 토요일 일요일 기숙사를 운영하지 않고 귀가하게 되는데 학교에서 공부하던 습관들이 집에 가서도 동아리나 그룹을 만들어 공부를 계속하고 있으며, 학부모의 영향도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이 우리학교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음
- 이제 학교에서의 연구활동도 정규교육과정 평가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어 사교육이 들어올 틈을 주지 않고 있음.
또한, 학원등의 평가는 선택형 평가를 중점으로 교육하는 반면, 본교는 모든 문제가 서술형으로 평가되고 있음

방한일 위원(농업경제환경위원회, 예산1)

과학인재 육성도 중요하지만 윤리교사가 배치되어 인성교육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음. 뉴질랜드 연수를 갔을 때 필수과목이 체육과 윤리였는데, 요즈음 직장생활에서 인가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음

윤리교육이 강화되었으면 좋겠음

김석곤 위원(교육위원회, 금산 1)

교육과정 편재를 보니 미술과목이 개설이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찰이 중요하고, 관찰력을 높이기 위해선 미술이 중요함

김준태 교장

과학고는 수학·과학 중점학교로 다른 과목에 우선에 교육을 펼치고 있으며, 전국 과학고는 거의 비슷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모든 과목이 있고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은데 교원수급등에 문제가 있어 쉽지 않은 상황임

김영수 위원(교육위원회, 서산2)

1. 특수목적고등학교 조기 졸업제도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2. 이사회와 리더로서 좋은 자원을 받아 교육을 하시는 만큼 인성교육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3. 중앙정부에서 직접내려오는 경우는 있는지?

김준태 교장

1. 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 법규에 운영되고 있으며, 과거 초창기에는 80% 까지 조기졸업이 있었으나, 최근에선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로 20%만 조기졸업하고 있음
2. 최선을 다해 교육하겠음
3. 별도의 예산은 없고 일반 인문계고등학교와 동일함.

김은나 위원(교육위원회, 천안8)

학생들의 대학진학 현황을 보면 매년 성균관대학교로 가장 많은 학생들이 진학하고 있는데 이유는 있는지?

김준태 교장

수도권대학에서 과학고 아이들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은 곳이 상대적으로 많아 우리아이들에 대해 비교적 호의적 평가를 하고 있는 성균관대학교를 많이 진학하고 있으며, 의대진학은 한명도 없고 모두 공대로 진학하고 있음

김명숙 위원(농업경제환경위원회, 청양)

과학고 졸업생이 1324명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도교육청이나 학교측에서 졸업생 추적을 통해 어떻게 이사회에 공헌하고 있는지 조사가 필요함.

주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과학고 이고, 집중투자되어 아이들이 성장한 만큼 나의 노력 뿐만아니라 지역의 주민의 노고(충청남도가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가 함께 투입되어 성장했다는 사회의식이 필요함

김준태 교장

우리과학고에서 작년부터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기수별로 졸업생들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으며, 공주지역 현장학습을 통해 우리고장 바로 알기 등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한옥동 위원장(교육위원회, 천안 5)

현재 전국 과학고 졸업생의 상당수가 의대로 진학하고 있는데 앞서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대 입학생이 한명도 없는 곳이 충남과학고라는 이야기는 너무 고무적임

다만, 과학고는 충남과학의 중추적인 역할이 필요함.

예를 들어 각시군에 상상이룸공작소라는 과학발명교실이 있는데 과학고에서는 학생들의 발명품을 일반 초중학생들이 함께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함.

또한 수학1시간을 줄여서라도 아이들이 1인 1악기를 다룰 수 있게 하고, 미술, 철학교육이 필요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인성교육이 가장 우선되어야 함
머리만 좋은 학생보다는 이사회에 공헌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인성교육이 선생되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의 구성원으로 키워 달라.

활동현황

[충남과학고등학교 방문]



- 일시: 2019. 11. 21.(목)
- 장소: 과학고
- 활동내용
과학고등학교
학교방문



- 일시: 2019. 11. 21.(목)
- 장소: 과학고
- 활동내용
논산고등학교
교육과정 청취



- 일시: 2019. 11. 21.(목)
- 장소: 과학고
- 활동내용
체육관(노후시설물)
점검

붙임 1) 신문스크랩

신아일보

2019년 11월 21일 (목)

종합

충남도의회 공교육강화특위, 학교현장서 공교육 활성화 모색

김기룡 기자

논산고·충남과학고 교육과정 참관...애로사항·지원방안 논의



공교육특위 논산고 방문. (사진=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공교육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21일 도내 일선학교를 방문해 교육과정을 참관하고 공교육 활성화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방문은 다변화하는 대입 제도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교육과정 운영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위 위원들은 이날 학생 중심 교육과정·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하는 자율형 공립고인 논산고와 도내 유일한 과학 특목고인 충남과학고를 방문해 다양한 특강과 동아리 활동, 방과후 수업을 참관하고 개선점을 살폈다.

아울러 수능을 위해 고생한 교직원을 위로하는 한편, 수능을 치른 학생들의 일탈행위 예방을 위해 현장체험학습이나 자율적인 학사 운영 등 교육과정의 내실화를 당부했다.

한옥동 위원장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안을 마련코자 일선 학교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며 “학생부종합전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대입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고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학부모 의견을 담은 최선의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내포/김기룡 기자

충남도의회 공교육강화특위, 학교현장서 공교육 활성화 모색

(내포)허희만 기자
-논산고·충남과학고 교육과정 참관...애로사항·지원방안 논의



공교육 활성화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논산고 현장방문 모습[사진=충남도의회제공]

충남도의회 공교육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21일 도내 일선학교를 방문해 교육과정을 참관하고 공교육 활성화 지원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다변화하는 대입 제도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교육과정 운영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위 위원들은 이날 학생 중심 교육과정·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하는 자율형 공립고인 논산고와 도내 유일한 과학 특목고인 충남과학고를 방문해 다양한 특강과 동아리 활동, 방과후 수업을 참관하고 개선점을 살폈다.

아울러 수능을 위해 고생한 교직원을 위로하는 한편, 수능을 치른 학생들의 일탈행위 예방을 위해 현장체험학습이나 자율적인 학사 운영 등 교육과정의 내실화를 당부했다.

한옥동 위원장(천안5)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안을 마련코자 일선 학교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며 "학생부종합전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대입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고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학부모 의견을 담은 최선의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전투데이

충남도의회 공교육강화특위, 학교현장서 공교육 활성화 모색

논산고·충남과학고 교육과정 참관...애로사항·지원방안 논의

김정환 kjhwan00@hanmail.net



▲ 충남과학고.

충남도의회 공교육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21일 도내 일선학교를 방문해 교육과정을 참관하고 공교육 활성화 지원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다변화하는 대입 제도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교육과정 운영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위 위원들은 이날 학생 중심 교육과정·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하는 자율형 공립고인 논산고와 도내 유일한 과학 특목고인 충남과학고를 방문해 다양한 특강과 동아리 활동, 방과후 수업을 참관하고 개선점을 살폈다.

아울러 수능을 위해 고생한 교직원을 위로하는 한편, 수능을 치른 학생들의 일탈행위 예방을 위해 현장체험학습이나 자율적인 학사 운영 등 교육과정의 내실화를 당부했다.

한옥동 위원장(천안5)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안을 마련코자 일선 학교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며 “학생부종합전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대입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고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학부모 의견을 담은 최선의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세계타임즈

2019년 11월 22일 (금)
지역

충남도의회 공교육강화특위, 학교현장서 공교육 활성화 모색

MBS

2019년 11월 22일 (금)
종합

충남도의회 공교육강화특위, 학교현장서 공교육 활성화 모색

뉴스충청인

2019년 11월 21일 (목)
종합

충남도의회 공교육강화특위, 학교현장서 공교육 활성화 모색

온양신문

2019년 11월 21일 (목)
종합

도의회 공교육강화특위, 학교현장서 공교육 활성화 모색

특급뉴스

2019년 11월 21일 (목)
종합

충남도의회 공교육강화특위, 학교현장서 공교육 활성화 모색

CTN 중경타임뉴스

2019년 11월 21일 (목)
지역

충남도의회 공교육강화특위, 학교현장서 공교육 활성화 모색

충남신문

2019년 11월 21일 (목)
종합

한옥동 도의원, 공교육 정상화 대안 마련해야

붙임 2) 논산고등학교 현황

① 학교 현황

교장명	부임일	교감명	부임일	행정실장	부임일
이용선	2018.3.1.	황보경휘	2019.3.1.	신경숙	2018.1.1.

② 학생 현황

(2019.11.1.자)

학년	1	2	3	계
학급수	4	4	4	12
학생수	92	99	115	306

③ 교직원 현황

구분	교 원										행 정			총 인원	
	교장	교감	수석 교사	부장 교사	교사	기간 제교 원	전문 상담 사	교무 행정 사	소계	행정 실장	주무 관	교육 공무직	소계		
인원	남	1	1	.	7	7	.	.	1	17	.	1	1	2	19
	여	.	.	1	2	9	4	1	.	17	1	1	8	10	27
	계	1	1	1	9	16	4	1	1	34	1	2	9	12	46

④ 역점 사업

진로 맞춤형 학년별 특색 교육활동

1. 1학년 진로탐구형 학술탐사 프로그램 운영
2. 2학년 융합독서로 세상읽기 프로그램 운영
3. 창의력 신장을 위한 토요 아카데미 운영
(인문, 경제, 수학·과학, 공학 등)
4. 탐구능력 향상을 위한 탐구대회 운영(새내기 자율 연구대회,
창의적 산출물 학술제 등)

⑤ 현안 사항

- 신축예정인 학교도서관(별관 2층, 설계완료)에 학생들의 도서관 활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본동 건물과의 연결통로 설치와 적정규모의 준비실을 갖춘 과학실 확충을 위한 1층 추가 증축 필요
- 고교학점제 기반조성을 위한 교과교실, 공강실 확보 등을 위한 학교 공간 재구성 필요

붙임 3) 충남과학고등학교 현황

① 학교 현황

교장명	부임일	교감명	부임일	행정실장	부임일
김준태	2018.9.1.	이영호	2018.9.1.	오경숙	2018.1.1.

② 학생 현황

(2019.11.1.자)

학년	1	2	3	계
학급수	4	4	4	12
학생수	77	72	50	199

③ 교직원 현황

구분	교 원										행 정				총 인원
	교장	교감	수석 교사	부장 교사	교사	기간 제교 원	전문 상담 사	교부 행정 사	소계	행정 실장	주무 관	교육 공무직	소계		
인원	남	1	1	.	8	13	1	.	24	.	2	2	4	28	
	여	.	.	1	3	4	2	.	13	1	2	10	13	26	
	계	1	1	1	11	17	3	0	37	1	4	12	17	54	

④ 역점 사업

'Scientist of Scientists' Be-Ssci 커리큘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ook → 생각하는 힘을 가진 과학자 ◦ English → 국제 경쟁력을 갖춘 과학자 ◦ Science → 연구력과 상상이름 역량을 가진 과학자 ◦ Self-Management → 자기관리 역량을 갖춘 과학자 ◦ Consilience → 융합 역량을 갖춘 과학자 ◦ Interaction → 더불어 살 줄 아는 과학자
---	---

⑤ 현안 사항

가. 체육관

- 1994년 준공, 활동 공간 협소, 시설 노후화로 현대화 필요
- 4층 규모 개축, 체육관 · 세미나실 · 실험실 · 특별실 · 동아리실 확충

나. 기숙사

- 1994년 준공, 기숙 공간 협소, 냉난방 및 샤워 설비 노후화
- 현재 재학생 200명 규모의 기숙사로 재건축 필요 (기존 150명 기준)